

말기 암환자와의 대화

경인여대 간호과

최 화 숙

말기 암으로 진단 받게 되면 환자와 가족 모두 처음에는 충격으로 할 말을 잃게 되거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좌절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부정'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몰라서 혼동과 심리적 부담을 겪게된다. 여러 가지 대응책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하고 나면 환자와 가족 모두 조금 차분해지면서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얼마 후에는 조금씩 다가오는 죽음과 직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들을 만나고 함께 대화해야 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이런 형편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말기 환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언가 말기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일 것이다. 그러나 봉사자 모임을 해보면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처음에는 내가 무엇인가 봉사를 통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여 시작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내가 도움을 받았고 오히려 배운 것이 많습니다"고 한다. 실은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말기 환자에게 접근할 때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 환자와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세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말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환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때에, 할 수 있도록 물끄러미 터주어야 하고 잘 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대화의 기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말문을 여는 개방적인 질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말문을 열게 도와주는 적절한 질문을 준비하여야 한다. 질문의 형태는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 가능한 폐쇄적인 것보다는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개방적인 질문이 바람직하다.

경 청

환자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하는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경청을 하여야 한다.

언어적, 비언어적인 환자의 모든 표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런데요?" 등의 반응을 하면서 환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펌프에서 물을 얻으려면 먼저 한 바가지의 물을 붓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여야 한다. 말문을 여는 개방적인 질문이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상기의 반응들은 후자에 해당한다. 자원봉사자의 태도 여하에 따라 환자가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도 하고 금방 철회하며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한다.

침 목

경청을 하는 동안에도 환자가 뜸을 들이고 있으면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잠시동안 침묵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특히 환자가 예비적 우울 상태에

있을 때는 때로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훨씬 치료적인 방법이다.

희망 불어넣기

대체로 말기 환자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울해 한다. 그러나 질병의 진행과정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겠다고, 필요할 때는 돕겠다고 희망을 줄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세에 대한 희망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말기환자와의 대화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상의 기법들은 배우고 연습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될 수 있는 기법들이다. 환자가 말하는 내용보다는 환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

고 공감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김수지, 오송자, 최화숙. 호스피스-사랑의 돌봄. 서울: 수문사, 1997
2. 한국호스피스협회. 호스피스총론. 서울: 한국호스피스협회출판부, 2001
3. Carol Wogrin. Matters of Life and Death. New York: Random House, Inc, 2001
4. Elisabeth Kübler-Ross. Living with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1
5. Maggie Callanan and Patricia Kelly. Final Gifts. New York: Bantam Books, 1997
6. Elisabeth Kübler-Ross. To Live Until We Say Good-Bye. New York: Simmon & Schuster Inc., 1997